

외국어학림    비구니 전법사 세계로 세계로  
 목판인쇄문화박물관    팔만대장경 '진면목' 한눈에

## 해인사 '변화삼매'

지나해 네차례 토론 바탕 '업그레이드' 설계 내놔

**#1**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15명의 비구니 스님이 '외국어 학림' 2년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해인사 대웅보전 부처님 전에 섰다. 해인사가 세계 전법 교화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한 여학전문 교육수행기관인 외국어학림에 선발된 후, 한국불교 세계화를 꿈꾸며 보낸 짧지만 긴 2년이였다.

졸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전법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외국어 학림을 졸업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눈은 이미 세계로 향해 있었고, 활동의 폭은 세계를 향해 끝없이 펼쳐져 있다.

**#2**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해인사 목판인쇄문화박물관을 한국 사찰 방문 코스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1000년 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목판인쇄문화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인사가 매년 10월이면 목판문화인쇄박물관과 연계해 열고 있는 3박 4일간의 목판인쇄문화축제는 세계인의 이목이

도인력으로 응원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구소와 외국어학림은 일희의 동의가 남아 있지만 선·교육·수행 도량으로서의 기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무난히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인사 변화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답게 성보박물관을 목판인쇄문화박물관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1000년을 이어온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기술을 관련 자료와 각종 문화재 등을 총망라해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말사들이 해인사에 내는 교구분담금을 교구 운영에 사용하던 관습을 과감히 탈피, 각 말사들이 지역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변화를 시도한다.

해인사는 이미 말사가 집중돼 있는 거창·합천·의령·진주·함양 등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8천만 원까지 어린이집 봉사·교양대학 운영·복지시설 건립·장학기금·불우이웃돕기 등의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대행복사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해인사가 어떤 변화를 이룰지, 과연 지역불교 활성화와 한국불교 세계화로 번져갈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해인사는 2월 7일 보경당에서 교구총회를 개최하고 '열린 해인사'를 표방하며 개혁과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 “당신을 공경합니다” 새희망운동본부 '상불경 보살' 되기 서원

희망찾기 시민운동·강좌 전개... 국민운동으로 확산 계획

'상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불성이 깃들여 있음을 일깨워주는 보살이다. 2005년, 상불경보살이 되길 발원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새희망운동본부(상임회장 임채수) 회원들이다.

결성된 새희망운동본부는 새해 첫 달인 1월부터 '희망'을 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는 임채수 상임회장을 비롯 김영환 시인, 이영숙 전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배승원 국제신문 前 논설위원 등 지역의 학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마다 부산역광장 등지에서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라는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리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만나어 마다 '당신들을 공경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 당신네가 마땅히 보살도를 수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한 상불경보살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시민들의 처진 어깨에 힘을 불어넣는 희망 전하기 운동은 부산을 중심으로 '희망 찾기 400만 시민운동' 서명도 받고 있다.

3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정신 시민강좌'를 열 계획이다. 교육,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희망을 일구는 운동에 동참할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마산, 창원, 진주 등에 지역대표를 두고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새희망운동본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다.

'상불경보살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겠다'는 원력을 세운 임채수 상임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희망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051)469-3100

글·사진=천미희 기자



새희망운동본부 회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라는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 신계사 복원·영통사 순례 '순풍'

조계·천태종 北과 실무회담

불교계 대북사업이 2005년에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2월 1일부터 4일간 금강산과 북경에서 각각 조선 불교도연맹 및 영통사 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을 위한 2단계 사업을 2월말에 열릴 예정인 사찰 복원 전문가 실무회담에서 확정된 뒤 3월부터 벌여나가기로 조선 불교도연맹과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올해 만세루와 요사채, 산신각 등을 우선 복원하며, 이를 위한 발굴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진 스님들의 방북본

제는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천태종은 북한 영통사 복원위원회와 2월 1~2일 북경에서 회의를 갖고, 3월부터 10만그루 '통일동산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6·15 공동선언일을 전후해 영통사 낙성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천태종과 영통사 복원위원회는 낙성식에 앞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학술세미나를 5월경 열기로 했으며, 개성관광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영통사 성지순례도 1주일에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3월부터 개성에 1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통일동산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유철주 기자

**할**

나는 6년전 출가 한후 스승은 농사짓고 밭하고 밭래 하죠

스님

머뭇직한 호박이 왜 없죠

좋은원인 안심어농고 좋은결과 찾느냐?

하하

그림·조태호

의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설 연휴 관계로 일부지역 512·513호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나 양해바랍니다.

### 대운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 조성기념 만등불사

인류평화기원과 우주무주 애혼 영가 극락왕생을 위한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귀의합니다. 묘림사와 과거 현재의 인연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소승 두손 모아 감사드리오며 불자님 가정에 일체 액난이 소멸하시어 뜻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원만성취 이루시길 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장대불을 조성 봉안하고자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제 지장 대불조성 화향을 아래 같이 알리게 되어 소승 너무나 큰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크나큰 기쁨을 부처님 전에 회향 올리며,

인류평화기원과 우주무주 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8m 높이(28자)의 지장대불 봉불점안식과 대법회를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봄날에 갖고자 하니 무무 동참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소멸하시고 선근인년 복덕을 지어 세계생생토록 복락을 누리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운산 자락에서 관진 합장  
 불기 2549년 1월 좋은날

**▶ 지장대불 점안법회 안내**  
 증명법사 우용 큰스님 (울산 학생선원 조실)  
 ● 일시: 불기 2549년 3월 6일 일요일 (음, 을유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대운사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전

**▶ 만등불사 점등식 및 전야제 안내**  
 ● 일시: 불기 2549년 3월 5일 토요일 (양력) 오후 7시  
 ● 장소: 노천 지장대불전 ● 동참금: 1인 1등 1만원  
 ● 온라인번호: (예금주 묘림사) 조흥은행 922-03-003246 부산은행 032-01-045509-9 농협 815040-51-035170

※ 차량운행안내 > 범어사 전철역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매일(오전 9시 30분) 차량운행대기 > 양산서정 파출소 앞 수시운행

가족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도량 **대운산 묘림사** 주지 관진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번지 전화 052)237-4366, 238-6264 (팩스겸용)